

신과 인간 이어주는 성스러운 우주 ‘나무’

신화 속에서 변형돼온 나무 상징의 역사

유재원 | 한국의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마을을 지켜주는 당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꼽힌다.

성스러운 나무 : 한 그루의 성스러운 나무는 그대로 하나의 성소가 된다. 언덕 위 큰 나무 아래 돌을 쌓아 놓은 성황당은 그런 성소가운데 하나다. 우리 조상들은 길을 갈 때 성황당에 잠시 머물러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소원을 빌었다. 마을을 지켜주는 당나무도 성스러운 나무다. 옛 마을이 개발돼 큰길이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도 당나무만큼은 신화를 믿지 않는 현대인들도 감히 손대지 못한다. 보호수란 이름으로 길 한가운데나 아파트 단지 안에 남아 있는 오래된 나무들은 이런 당나무들이다.

이그드라실, 성소이자 우주의 중심

성스러운 나무로 가장 유명한 것은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나오는 이그드라실이다. 이 나무

의 가지는 하늘까지 닿아 있고 땅속으로는 엄청나게 큰 세 개의 뿌리가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첫번째 뿌리에는 신들이 거주하고 두번째 뿌리에는 ‘서리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세번째 뿌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각 뿌리에는 각기 하나의 신비스러운 샘이 있다. 신들이 사는 곳의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 샘은 신과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신이 지키고 있어 인간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다.

서리 거인들이 사는 곳에는 지혜의 샘이 있다. 이 샘은 ‘명상’이란 이름을 가진 샘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자신은 매일같이 이 샘물을 마셔 심오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은 자들의 샘은 지상의 모든 강물의 원천으로 이 샘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난다고 한다.

우주의 중심 : 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의 중심축에 켜인 세 영역, 곧 천상, 지상, 지하로 이뤄져 있다고 믿었으며, 중심축을 통해 이 세 영역을 왕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성스러운 나무는 바로 우주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샤먼은 자작나무를 타고 조상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 많은 신화와 민담에서도 성스러운 나무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등장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봤다는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사다리도 성스러운 나무였다. 그럼 동화의 한스가

콩나무 넝쿨을 타고 거인의 집으로 가는 것도 이런 오래된 믿음의 변형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는 바로 우주의 중심인 성스러운 나무였다. 그래서 죽음의 신 ‘마라’는 부처를 그 나무 밑에서 쫓아내려고 딸들을 시켜 유혹하기도 하고 마왕의 군대를 풀어 위협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임을 알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다.

저승과 이승, 신들의 세계를 잇는 통로

지혜의 나무 : 하늘과 땅속을 자신의 생활 영역으로 삼는 나무는 온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안다. 오직 신들만이 나무에 맞먹는 우주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무는 세계 여러 신화에서 지혜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에덴동산의 지혜의 나무도 이런 상징의 하나일 뿐이다. 흔히 이런 나무는 용이나 뱀, 또는 커다란 독수리와 같은 신성한 동물들에 의해 지켜졌다.

지혜의 나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던 시기에 나무를 지키는 신성한 동물들은 악마로 전락했다. 여기서 에덴동산의 뱀이 유래한다. 지혜의 상징인 나무는 신탁을 내린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의 나무는 그리스 북서부 지방 에피로스의 도도네에 있는 떡갈나무다. 도도네는 고대 그리스에서 델포이만큼의 명성을 누렸던 제우스의 신탁소였다. 이 신탁소에서는 여사제들이 떡갈나무 잎새들이 바람에 흔들려 내는 소리를 듣고 신탁을 내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신화에서 나무는 성소이자 우주의 중심이며 신들의 세계와 저승, 그리고 이승을 잇는 통로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나무가 인간의 생명을 담고 있다고 믿었다.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나무에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인간들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기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숲과 나무를 성스럽게 여기고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랫동안 나무와 숲이 이뤄놓은 것이다. 이를 모르고 개발이란 미명 아래 함부로 나무와 숲을 망치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신들의 재앙이 떨어질지 걱정스럽다. ■

유재원 교수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의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리스 신화의 세계(전2권)》 《우리말 역순 사전》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공저) 등을 펴냈다.